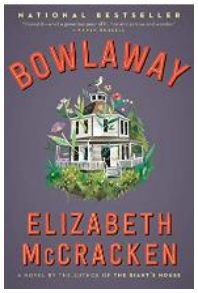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OWLAWAY
가제 : 버사의 볼링장
저자 : Elizabeth McCracken
출판사: Ecco
발행일: 2019년 2월 5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BBC,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보스턴 글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
* "괴짜 중에 괴짜, 기괴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일들을 위트와 진심을 담아 그린 이야기. 작가의 한없이 영리한 문장을 읽으며 이리저리 꼬이는 별난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은 쉴 틈 없이 즐겁다" – NPR
* "인간의 생각과 감정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곳까지 본능적으로 다가갈 줄 아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소설가" – 「뉴욕타임스」

3월 중순, 여전히 눈이 내려 바닥이 꽁꽁 얼어 있던 뉴잉글랜드 샌포드에 기묘한 일이 생긴다. 마을 공동묘지 한복판에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묘지 경비를 맡은 열아홉 살 소년 조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기겁했다. 조가 남모르게 늘 두려워하던 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었고, 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땅딸막한 체격의 여성은 조의 두려움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이 낯선 여성은 마침 근처를 지나던 의사와 조의 도움으로 눈이 없는 곳으로 옮겨진 직후 멀쩡히 정신을 차렸다. 옆에 같이 내팽개쳐져 있던 큼직한 가방 속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함께 작은 볼링 공 한 개와 볼링 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버사 트루이트. 조가 볼링 공과 볼링 핀을 끄집어내는 것을 눈을 뜨자마자 본 버사는 자신이 캔들핀 볼링을 처음 개발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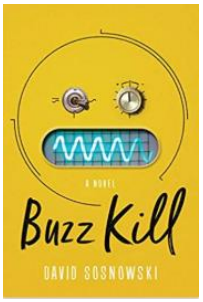
누군가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 손에 이끌려 지역 병원에 입원한 버사는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어디서 왔는지, 뭐 하던 사람인지 물으면 '나는 지금 이 곳에 있으니 그런 건 중요치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행동이나 입맛으로 출신을 예측해보려는 여러 사람들의 시도도 다 실패로 돌아갔다. 특색 있는 억양도 없고, 특별히 안 먹는 음식이나 유독 선호하는 음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샌포드 마을은 이 묘령의 중년 여성에 관한 갖가지 소문으로 가득해지지만 마사는 별로 개의치 않는

다. 그리고 갖고 온 가방 바닥에 숨겨져 있던 금으로 캔들핀 볼링장을 세운다. 청교도들이 처음 개발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행하게 된 캔들핀 볼링은 머리 부분이 작고 몸통은 두툼한 일반적인 볼링핀 대신 총알을 길게 늘려놓은 것처럼 길쭉한 볼링핀이 사용되는 독특한 게임이다. 버사는 손바닥 하나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를 샌포드에 전파하러 온 특사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적당한 장소를 고르고, 묘지에서 처음 자신을 발견한 조를 직원으로 채용하며 거침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버사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와 함께 묘지에서 자신을 살려내려고 애썼던 흑인 의사 스프라그 박사를 남편으로 택한다. 20세기 초반, 아직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던 때에 스프라그 박사와 가정을 꾸린 버사는 우아한 여성들의 필수품이던 코르셋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어느새 평생 샌포드에 살았던 사람처럼 마을에 스며든다. 작가는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날카로운 유머와 뛰어난 통찰력으로 버사로부터 시작되어 3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한 가족의 비밀과 배신, 열정, 가족을 묶는 연결고리와 결국 그 질긴 고리마저 끊어지게 만드는 분열의 순간을 그려낸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뜻밖의 전개와 시처럼 유려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힘에 이끌려 놀라고 웃고 공감하게 되는 소설이다.

마사와 스프라그 사이에 태어난 딸 미나는 넘치는 카리스마로 볼링장을 운영하기에 바빴던 엄마보다는 가사 일을 돕던 마가렛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길었고, 자라면서 집을 떠날 기회만 찾게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던 버사가 1919년, 당밀 공장 근처를 지나다가 저장고가 폭발하는 바람에 쓰나미처럼 덮친 당밀에 잠기는 희한한 사고로 허망하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의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버사의 사망 후 그녀에게 '나훔'이라는 친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7개월 후, 변호사가 낸 신문광고를 보고 자신이 나훔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샌포드에 나타난다. 그 때까지 볼링장을 지키고 있던 이들과 마사를 아끼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그가 진짜 마사의 혈육이 맞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그 사이, 성인이 된 미나는 샌포드를 떠나고 소설은 로이와 아치 두 아들을 키우며 샌포드에 남았던 마가렛과 볼링장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자신이 주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마사가 미처 밝힐 틈도 없이 죽는 바람에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남은 유산과 유언은 무수한 싸움과 분쟁을 불러 일으킨다.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인식과 세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볼링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 같이 엉뚱한 개성 넘치는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 가족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맥크라켄(Elizabeth McCracken)은 내셔널 북어워드 결승에 오른 『The Giant's House』와 『Niagara Falls All Over Again』, 회고록 『An Exact Replica of a Figment of My Imagination』, 2014년 스토리 상을 수상하고 내셔널 북 어워드 후보로 선정된 『Thunderstruck』을 쓴 작가다.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서 교수로도 활동해 왔다.



제목 : BUZZ KILL
가제 : A. I. 버즈킬
저자 : David Sosnowski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20년 1월 28일
분량 : 약 468 페이지
장르 : SF소설

* **"데이빗 소스노스키의 소설을 읽으면서 올림픽 체조 경기에 나온 선수가 공중을 가르며 여섯 가지 불가능한 기술을 선보이더니 착지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본 기분이 들었다." - 전작 『Happy Doomsday』에 대한 서평, 『The Sparrow』의 작가 메리 도리아 러셀**
* **"다정함과 유머가 능숙하게 섞인 작가의 글은 가장 어울리지 않은 세상에서 피어난 사랑을 독창적으로 이야기한다" - 전작 『Vamped』에 대한 서평, 「북리스트」**

친구도 사귀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천재 소녀와 마음 편히 지낼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해킹에 매달리던 또 다른 천재 소년이 머리를 맞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전작 소설들에서 암울한 환경을 헤쳐 나가는 청소년들의 성장기 혹은 생존기를 독특한 유머와 특이한 소재로 풀어내며 호평을 받았던 작가는 2020년에 출간될 신작에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을 바꿔 보기로 한 두 천재 해커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판도라 린치가 처음 컴퓨터를 접한 것은 그녀가 세 살 때였다. 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아빠 로저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에 대해 "왜?"라고 물어대는 판도라가 신기하고 기특했지만, 아이의 끝이 없는 호기심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유아들이 말로 명령어를 제시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컴퓨터를 판도라에게 선물해준 것은 어느 정도 로저의 자기 방어적인 조치였다. 검색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판도라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컴퓨터가 읽어주는 검색어에 대한 첫 번째 결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판도라는 나머지 결과들도 스스로 읽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혼자 글자를 배웠고, 일곱 살 즈음에는 온라인 검색의 고수가 되었다.

판도라와 로저가 사는 알래스카에서는 학교를 오가기 힘든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판도라 역시 그렇게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자,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로저는 판도라를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게다가 로저의 직업은 실리콘 밸리의 천재적인 CEO들과 그들 회사의 직원들이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 상담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판도라가 커가면서 일이 바쁘거나 힘들 때는 혼자 조용히 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판도라가 어릴 때 맡아 봐주시던 모친이 치매로 요양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상 대안이 필요했고, 고등학교는 부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또래 아이들은 생각보다 사악했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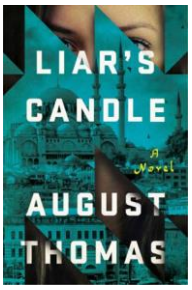
보다 멍청했다. 그들은 판도라를 잘못 건드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일곱 살 때 인터넷 검색에 통달한 이후 비상한 두뇌로 독학을 감행하여 못 뚫는 사이트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해커가 되어 있었던 판도라는 자신을 놀라게 만들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움짤로 만들어 퍼뜨린 남학생들에게 본 떼를 보여주기로 다짐한다. 판도라의 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언론은 이 사건을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고'라 표현했고, 한 명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조지 제드슨은 꼬마 때부터 인생이 기구했다. 홀로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가 아이 보는 데 소질도 자격도 없는 삼촌에게 조지를 맡겼기 때문이었다. 마약을 파는 것도 모자라 걸음마도 떼지 못한 조카 옆에서 대마초를 피우던 삼촌은 몽롱한 상태로 늘 SF 영화를 응시했고, 조지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세상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엄마도 삼촌도 더 이상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게 된 후,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겪은 조지는 틈틈이 취미 삼아 공부했던 해킹 실력을 시험해볼 겸 사회보장 시스템에 침입한다. 그리고 열여섯 살에 자신을 위탁 가정이 필요한 청소년 명단에서 삭제하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원치 않는 보호자들과 엮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 때부터 공공 도서관 내 시스템을 조작해서 도서관에서 살게 된 조지는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전부 독파하며 전문 해커로 성장한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소셜 미디어 업체로 유명한 '콰이어' CEO의 자동 운전 시스템에 슬쩍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이 거대 기업의 일원이 될 기회를 얻는다. 조지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호의와 안정적인 미래 앞에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꿈에 그리던 최첨단 시스템과 장비가 모두 갖춰진 콰이어에서라면 지금까지 장난 삼아 해온 해킹과는 차원이 다른 세기의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디어에 매료된 조지는 '버즈'라 이름 붙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콰이어의 전속 심리 상담가인 로저를 통해 판도라의 존재를 알게 된다.

판도라에게 '버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였다. 치매로 기억은 물론 말하는 것도 점점 잊어가던 할머니를 꼬박꼬박 찾아가 두 손을 붙들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냥 쏟아내던 어느 날, 아무 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던 할머니가 스토커처럼 따라온 어떤 남자 때문에 고생했다는 손녀의 이야기를 듣더니 "썩 꺼지라고(buzz off) 하질 그랬니" 라고 말한 것이다. 깜짝 놀라 배가 아프도록 깔깔 웃는 판도라의 모습에 할머니도 놀랐는지, 그 후로는 판도라의 얼굴만 보면 앵무새처럼 그 말만 반복했다. 처음에는 문자로 아이디어만 공유하던 조지라는 해커가 '버즈'라는 AI를 만들었다는 말에 솔깃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두 천재 해커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던 버즈가 점점 예상을 뛰어 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세상은 버즈의 무서운 결론에 따라 종말을 향해 간다. 유머와 비극이 시종일관 공존하며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섬뜩한 미래를 보여주는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소스노스키(David Sosnowski)는 개그 작가, 대학 강사,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평단의 호평을 받은 소설 『Rapture』와 『Vamped』, 『Happy Doomsday』가 있다.



제목 : LIAR`S CANDLE
가제 : 위선자의 촛불
저자 : August Thomas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8년 4월 1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현장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반전 가득한 스파이 스릴러. 탄탄하면서도 신선하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Red Hunter』의 작가 리사 언거**
* **"흡입력 있는 스파이 소설과 어드벤처 영화의 스릴이 결합된 위트와 액션이 가득한 데뷔작"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 터키 앙카라 미 대사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엄청난 폭발로 대사관 건물과 일대가 초토화되고 256명에 달하는 터키인 직원과 미국 외교부, 국무부 소속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 사건을 명백한 테러로 판단한 미국 정부는 서둘러 용의자를 찾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간 젊은 인턴 직원에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힌 한 기자의 사진 때문이었다. 독립 기념일을 맞아 미 대사관에서는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고, 행사를 준비하던 21세 국무부 인턴 페니 케슬러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새하얀 드레스가 피에 흠뻑 젖은 채 커다란 성조기를 먼지와 잔해 틈에서 끄집어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테러리스트와 제국주의자,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타임지 표지에 실린 이 사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페니가 의식을 차리기도 전에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린다. 페니가 깨어나길 기다린 것은 기자들만이 아니었다. 국무부 고위 간부, 프랭크 러먼과 CIA 수사관들, 그리고 페니의 상관까지 줄줄이 병원에서 대기 중이었다. 터키에 온 지 이제 겨우 6주째인 인턴의 건강이 염려되어서가 아니라,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터키인과 변절 행위가 의심되는 미국 외교관 재커리 롭슨의 행방을 알 만한 사람이 페니였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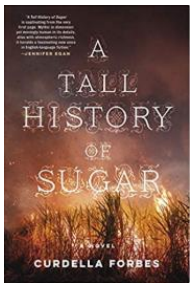
'깃발 든 여성'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 돌풍까지 일으키며 테러 사건의 상징이 된 페니는 터키어에 능통한 열정적인 청년 인턴 중 한 사람이었다. 따로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앙카라까지 와서 매일 터키 신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며 국무부 직원이 되고 말겠다는 야심을 키우던 성실한 그녀가 어쩌다 미국 정부는 물론 터키 정부까지 주목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을까? 앙카라에 온 직후에 만나 페니와 일종의 '썸'을 타는 관계였던 재커리 롭슨과 폭발 직전에 재커리 롭슨이 페니에게 소개시켜준 처음 본 터키인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페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연기처럼 사라져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고, 재커리가 조국을 배신하고 사고를 계획한 자들과 모의했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미국 정부는 페니가 그의 행방을 뒤쫓을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페니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폭발 훨씬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들 중에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었다. 재커리가 사고 20초 전에 페니에게 그 터키인을 파티 초대인 명단에 넣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정말 세계를 경악시킨 테러와 관련이 있을까? 페니 스스로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캐내려고 양국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 기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그들보다 먼저 진상을 스스로 파악하기로 결심한 페니는 일단 재커리의 행방부터 직접 찾아보기로 한다. 하지만 페니가 퇴원하기 직전에 터키 총리가 터키 대통령의 주치의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며 그녀에게 접근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페니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터키 대통령의 딸 멜렉이 직접 찾아와 새로 지은 관저에서 편히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제의를 하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된 페니는 멜렉의 손에 끌려가듯 관저로 향한다. 대체 왜 다들 페니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드는 걸까? 페니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페니는 재커리를 찾기 위해 해군 출신의 신입 CIA 정보요원 코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처럼 순진하고 열정 넘쳐 보이는 코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까? 마음 한 켠에 의혹이 지워지지 않지만 코너의 도움으로 일단 멜렉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한 페니는 자신을 뒤쫓는 사람들을 피해 24시간 내에 재커리를 찾기 위해 나선다.

터키에서 시리아로 국경을 넘고 어느 집단의 사주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무리에게 쉴 새 없이 쫓기며 정신없이 달아나는 동안, 기적같은 행운으로 페니와 코너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는다. 마침내 재커리가 있는 곳을 찾아낸 두 사람은 페니가 입원했던 병원까지 찾아와 무언가를 캐물으려 했던 코너의 상관이자 국무부 간부인 프랭크가 멜렉과 모종의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페니는 재크에게 어딘가 석연찮은 면이 있음을 뒤늦게 눈치챈다. 대사관에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와 재크가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의심한 대로 폭발 시점에 재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가 오래 전부터 상관인 크리스티나와 함께 터키의 테러 집단이 무기를 사들일 수 있도록 은밀하게 지원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멜렉의 부하들에게 잡힌 페니와 코너는 멜렉 앞에서 자신의 이중적인 실체를 뻔뻔하게 드러내며 거래를 제안하는 재크의 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 미국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유력 정치인인 사촌 형과 함께 돈이든 권력이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건 다 해온 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 페니는 과연 이 도망갈 곳 없는 싸움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략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박진감 넘치는 전개, 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 현실감 가득한 이야기와 영화 같은 액션이 흡입력을 더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오거스트 토머스(August Thomas)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를 졸업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터키 보스포루스 대학교, 에딘버러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여행 작가로 일해 왔다.



제목 : A TALL HISTORY OF SUGAR
가제 : 설탕 속 우리
저자 : Curdella Forbes
출판사: Akashic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프랑스 판권 계약(pre-empt)
* "몰입하게 만드는 현대판 동화. 독특한 사랑 이야기이자 식민지에서 벗어난 자메이카의 몽환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첫 페이지부터 마음을 사로잡은 소설. 신비로움 속에서도 세밀한 부분은 놀라울 만큼 인간적이고, 깊고 풍성한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 소설가 제니퍼 이건(Jennifer Egan)

살다 보면 어떤 대상이나 장면과 마주한 순간, 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가 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거부할 수 없이 마음이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한없는 무력감과 함께 세상 무엇도 그 감정을 어쩌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 1958년 어느 금요일,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남편과 병원에 갔다가 홀로 돌아오던 레이첼은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한다. 절벽 아래, 갈대를 엮어 만든 바구니 속에 빨간색 천과 함께 삐죽 나와 있던 작은 다리, 허공을 향해 열심히 허우적대던 작은 발과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를 향해 이끌려간 레이첼은 갓 태어난 사내아이를 들어올린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에 휩쓸린다. 피부가 투명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얇고 창백한 아이는 레이첼이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막 밀려오기 시작한 바닷물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내려갈 뻔했다. 이미 자작자작 물에 잠기기 시작한 바구니 바닥에 누워 있던 아이에게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담긴 '모셰'라는 이름을 붙인 레이첼은 모셰를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선물로 여기고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

앞쪽 절반은 금빛이고 뒤쪽 절반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희끗희끗한 회색 머리카락에, 눈도 한 쪽은 하늘을 닮은 푸른빛이고 한 쪽은 진한 갈색인 기이한 외모를 갖고 태어난 모셰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짓궂은 아이들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일곱 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 날, 외모만큼 성격도 정신도 예민한 모셰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단짝이 나타난다.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누가 뭐라고 윽박질러도 절대 지지 않는 소녀 아리엔은 시퍼런 빛이 도는 피부에 요상한 빛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모셰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켜줘야 할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모셰와 아리엔은 늘 괴롭힘 당하고 눈총을 받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우정과 사랑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들의 노력은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나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는 자메이카의 혼란스럽지만 희망찬 분위기와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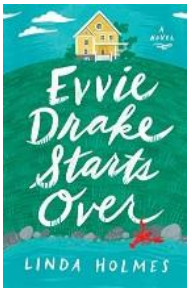
자메이카 출신인 작가는 국적은커녕 인종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모셰와 돈키호테 같은 아리엔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설 곳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려낸다. 비상한 두뇌를 타고나서 남들보다 더 멀리보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아리엔과 모셰는 늘 붙어 다니고 서로를 소울메이트로 생각하지만 세상에 눈을 뜰수록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리엔은 독립한 자메이카가 보다 굳건한 국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뿌리 깊은 인종 차별과 계급 격차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또래 여자 친구들과 집회를 열고 팸플릿을 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모셰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예술가적 기질을 살려 시각 예술가가 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자 처한 환경과 그리는 미래가 다른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강렬한 끌림만큼 강력한 힘과 장애물이 두 사람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작가는 자메이카가 갓 독립한 1960년대부터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 정세가 뒤흔들리는 시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찬찬히 따라가며 미신과 독특한 종교, 가난과 차별, 노예 생활, 질병이 일상에 녹아 있는 자메이카의 시골 마을과 영국을 오가며 모셰와 아리엔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들려준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레이첼이 모셰를 처음 발견하고 아들로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모두가 모셰의 친부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는 영국에서 온 교사들이 식민지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했고,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살게 된 남자 교사들 중에는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어린 흑인 소녀들을 건드리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 모셰처럼 흑발과 흰머리가 섞인 특이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가 모셰의 친부라고 수군댔다. 버려진 아이가 발견된 직후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긴 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레이첼의 남편 노아는 집안 대대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설탕과 또는 설탕을 생산하다가 나온 부산물을 너무 많이 먹고 흡입할 뿐 아니라 늘 피부에 설탕 찌꺼기가 들러붙어 크고 작은 병을 평생 달고 살았기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니 레이첼과 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모셰는 기적 그 자체였고, 모셰도 양부모님이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 자신을 키워준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크면서 친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떨칠 수 없게 되고, 결국 영국으로 가서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처참한 비극으로 나타난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안고 돌아온 모셰와 미국으로 떠나는 아리엔,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식민주의가 수 세대에 걸쳐 남긴 선명한 흔적을 날카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정체성과 사랑을 찾아 헤매는 두 특별한 인물의 삶을 때로는 시적으로, 때로는 노래하듯이 묘사한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커델라 포브스(Curdella Forbes)는 자메이카 출신의 작가로 『Songs of Silence』, 『A Permanent Freedom』 등 네 편의 소설과 아동서 『Flying with Icarus and Other Stories』를 썼다. 현재 미국 하워드 대학교에 지중해 지역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EVVIE DRAKE STARTS OVER
가제 : 에비의 홀로서기
저자 : Linda Holmes
출판사: Ballantine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로맨스 소설

***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딸 제나 부시 헤이거가 진행하는 『제나 부시 헤이거의 북클럽(Jenna Bush Hage's Book Club) 』 7월 도서 선정 (참고 사이트: July pick for Jenna Bush Hager's book club) 이후 아마존 소설 부분 1위**
***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
*** 아마존이 선정한 2019년 7월 최고의 소설 / 7월의 Indie Next Pick**
*** pre-empt 로 계약된 이탈리아 및 영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총 8개 국가 판권 계약**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에비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선다. 바로 그 때, 에비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는다. 남편이 차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와 있다는 연락이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랄 틈도 없이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에비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에비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다.

에비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절친 앤디는 남편을 잃은 후 1년 동안 거의 집 밖에서 나오지 않고 은둔자처럼 사는 에비가 걱정이 된다. 때마침 그에게는 걱정스러운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뉴욕 양키즈에서 투수로 대활약을 펼쳤으나 1년 전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슬럼프 때문에 은퇴한 친구 '딘'이다. 은퇴한 뒤 딘은 커피 한 컵을 사러 나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맨하탄을 잠시 떠나고 싶어한다. 두 친구 모두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앤디는 딘에게 한적한 동네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며 에비의 집 뒤에 딸려있는 작은 스튜디오를 소개해주고, 앤디와 에비가 사는 메인 주의 마을로 찾아온 딘은 에비의 뒷집에 사는 세입자가 된다.

에비와 딘은 누구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 주민으로 지내면서 점점 친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왔던 두 사람은 한 가지 거래를 한다. 딘은 에비에게 남편과 결혼생활에 대해 묻지 않는 대신 에비는 딘에게 야구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다. 둘은 이 약속을 잘 지키며 좋은 친구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끼는 우정과 호감이 더 깊어져 갈수록 서로의 현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과거에 대한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에비는 절친 앤디나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의 비밀을 딘과 나눈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에비의 결혼 생활은 사실 회한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에비의 학창 시절 연인이자 모두에게 칭찬받는 의사였던 닥터 드레이크는 매력적이고 똑똑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여 남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다. 비극의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사건들이었다. 퇴근 후 피자를 사올 테니 같이 먹자고 약속했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에비에게 빈 손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에비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아내를 밀쳐서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지게 해놓고는 당신이 내 앞에 끼어들다가 걸려 넘어진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멍든 등을 보고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고 혀를 차거나 하는 일들이 쌓여갔다. 에비는 숨이 막힐 때마다 집 뒤에 딸린 작은 스튜디오로 가서 집을 떠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짐을 꾸려 나온 에비는 문을 나서면서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날 이후로 죄책감과 분과 무기력을 떨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

남편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만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에비의 깊은 속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는 것은 딘 뿐이었다. 그리고 딘에게도 그의 이유 모를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자선 행사 야구 경기에서 그가 대활약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던 이유는 관중석에 있던 에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재기하기 위해 뉴욕에 갔다가 참패를 하고 돌아온 딘은, 자신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는 에비에게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화를 내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한다. 그렇게 흐지브지 마무리된 두 사람의 관계는 딘이 완전한 은퇴를 결심하고 뉴욕으로 돌아가 코치로 일하면서 정리가 된다.

뉴욕에서 친구들과 가족들 곁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딘은 그러나 부모님과의 대화 중,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에비가 재기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사실은 재기를 강렬히 원했던 것도 에비를 원했던 것도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연인을 찾아간다. 오랜만에 만난 에비는 이제 진정한 새 삶을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나와 이사를 가고 상담도 받기 시작하며 귀여운 애완견도 키우고 있었다. 딘과 가까워지는 동안 조금씩 멀어졌다가 나중에는 크게 싸웠던 앤디와도 다시 화해한 상태였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앤디의 결혼식에 참여한 두 사람의 모습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마지막을 장식한 딘의 미소가 어딘가 어설프고 에비의 웃음이 쾌활한 것처럼 동화 같은 해피 앤딩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쾌하고 인상적인 로맨스 소설이다.

<작가 소개>

린다 홈즈(Kim Ligget)는 작가이자 문화 비평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이다. 저자는 NPR(National Public Radio)에서 대중 문화 부분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티븐 톰슨과 글렌 웰든과 함께 <Pop Culture Happy Hour> 팟캐스트 쇼를 진행하고 있다. NPR 이전에 저자는 <뉴욕 매거진 온라인>과 <TV 가이드> 등의 작가로 활동했으며, Shonda Rhimes, Ron Howard, Connie Britton, Trevor Noah, B. J. Novak, Judy Blume 등의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Updates:

Further to Rebecca's note below, I'm happy to say that the **bestseller news for EVVIE DRAKE STARTS OVER by Linda Holmes has led to several new foreign d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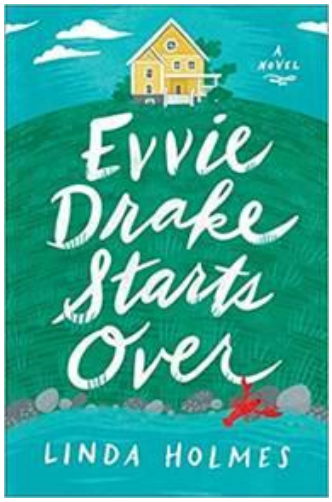
- We recently wrapped up deals in the **Netherlands, Israel, Hungary and Croatia** and we are now up to **7 foreign deals total for EVVIE DRAKE STARTS OVER**: Hodder (UK & BC), Sperling (Italy), Intrinseca (Brazil), Luitingh Sijthoff (Netherlands), Tchelet (Israel), Cultural (Hungary), Znanje (Croa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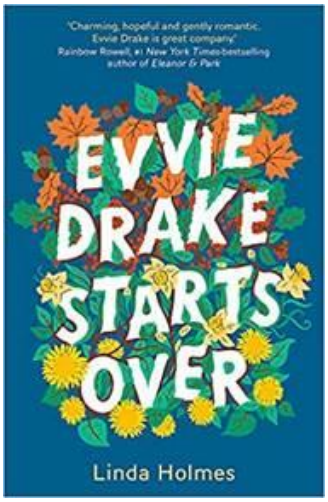
- **EVVIE DRAKE STARTS OVER has stayed on the *New York Times* bestseller list for hardcover fiction for 3 weeks** (for the most recent NYT bestseller list for the week of July 28 it will appear at #9 on the hardcover list).

- **Linda Holmes was on NBC's *Today* show this morning to talk with the Jenna Bush Hager and Heather McMahan about the novel ! Here's the link to the interview.** This is one of the biggest publicity hits a book can get and the novel shot up to #8 on Amazon today.

- **We did a deal in Russia with AST and we are now up to 8 foreign deals total.**

  Hodder (UK & BC), Sperling (Italy), Intrinseca (Brazil), Luitingh Sijthoff (Netherlands), Tchelet (Israel), Central (Hungary), Znanje (Croatia), AST (Russia)





EVVIE DRAKE STARTS OVER: *A Novel* by Linda Holmes

You don't always get to start your life over.
Sometimes, life starts itself over for you.

With starred reviews galore and a whole host of blurbs from supportive authors, EVVIE DRAKE STARTS OVER is lining up to be a favorite for those looking for an utterly satisfying summer read:

Advance praise:

"*Evvie Drake Starts Over* is a **heartwarming** rom-com about loss, grief and second chances…. Despite the kernel of sadness rooted at the novel's core, *Evvie Drake Starts Over* is a feel-good read that radiates warmth. Holmes nails the balance between romance and humor, with Evvie and Dean's effortless and truly funny dialogue being a particular strength…. **Uplifting and life-affirming**, *Evvie Drake Starts Over* is a perfect choice for fans of Rainbow Rowell and Marian Keyes." **—*BookPage* (starred review)** ★

"The charm of Holmes' novel comes not only from a genuine friendship between Evvie and Dean that develops into a sweet romance but also from watching amiable Evvie stumble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herself in a realistic way. **A warm and funny book** that will utterly captivate fans of Abbi Waxman and Taylor Jenkins Reid."**—*Booklist* (starred review)** ★

"A **warm and lovely** romance**.**" **—*Kirkus* (starred review)** ★

"A smart romantic comedy . . . *Evvie Drake Starts Over,* ripe with amusing wit and charm, skillfully explores regret and longing, friendship, love and forgiveness and the challenges posed by reinvention. Strong characterizations and short, well-plotted scenes are filled with clever banter. . . . Readers will cheer for this **richly drawn cast**."**—*Shelf Awareness***

"Holmes's debut charms, as a young widow and a former Major League pitcher learn to begin again. . . . At times deeply emotional yet sometimes extremely humorous, this is **a satisfying crowd-pleaser**."**—*Publishers Weekly***

"**Pitch-perfect**. . . proves NPR's Linda Holmes a natural novelist...a nuanced, extraordinarily ordinary adult love story that is as romantic as it is real."**—*USA Today***

NON-FICTION

제목 : THE INVENTION OF INFINITE GROWTH
가제 : 무한 성장, 꿈이 아니다
저자 : Christopher Jones
출판사: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발행일: 2021년 가을
분량 : 10-12만 단어
장르 : 경제

*** 경제 성장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멈출 수밖에 없다고 보는 생태학과 자연 자원이 없어도 경제의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제학, 판이하게 다른 두 관점을 분석한 역사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 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한결 같이 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제 성장'이다. 세금 감면이나 절세, 포괄적인 혜택의 의료보험 제도, 강력한 군대,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 등 언뜻 보면 모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들의 공통분모에는 경제 성장이 놓여 있다. 때로는 경제 성장이 종교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도 현대사회가 중시하는 문제가 모두 경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 혹은 한계로 작용하는 강력한 문제가 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파괴되는 생태계와 기후 변화, 점차 사라지고 약화되는 생물 다양성, 천연자원의 고갈, 토양 침식 같은 과학계의 경고성 연구 결과들은 성장을 강조하다가 인류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지금 같은 속도와 범위로 생산과 소비가 지속된다면 인류가 지구에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날이 온다는 생태학자들의 열띤 주장은 성장을 외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는 설득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20세기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뛰어난 사상가로 꼽히는 로버트 솔로는 「이코노미스트」지를 통해 이러한 통념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혔다. "자연 자원이 없어도 사실상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정도 유한한 비용을 들이면 고갈될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경제학을 맹신하거나 생태계 보존을 등한시하는 것도 아닌 그가 이런 결론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로버트 솔로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2차대전 이후 활동한 경제학자와 사회 리더들 중 상당수가 자원이 유한한 지구에서 경제가 무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러한 주장의 뿌리를 추적한다.

환경적인 한계로 인해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하는 날이 언젠가 찾아온다고 확신하는 생태학자들과 가격 신호, 기술 변화, 자본 교체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의 극명한 대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분석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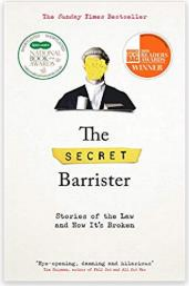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학문'으로 여겨지던 경제학에 장밋빛 가능성과 낙관적인 미래가 자리 잡게 된 여러 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경제학자들이 어쩌다 자연계를 잊었을까'라는 부제에도 드러난 것처럼, 경제학이 처음부터 자연을 등한시하거나 자연과 경제를 분리시키지는 않았으며 생태학을 탐구하던 사람들이 늘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일만 해온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곧 생태학과 경제학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인식이 잘못되었으며, 편협하고 한정된 현재 논의의 범위를 과감하게 확장시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다면 인류와 자연계를 모두 고려한 성장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경제성장 이론을 발전시키던 경제학계가 에너지와 환경을 점차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던 시기의 갈등과 이후 벌어진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난 2세기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 현재 우리가 맞이한 시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한다.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방치되거나 지워졌던 생각을 되짚어보고 다시 생각해볼 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도 더 많은 가능성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머리말
1부. 분열 전 상황
  1장. 정통 정치경제의 유한한 세계
  2장. 미국 경제학의 성장
  3장. 기억의 법칙
2부. 무한 성장의 발견
  4장. 대공황부터 전후 경제 붐까지
  5장. 성장 이론의 등장
  6장. 경쟁적 성장
3부. 환경 시대의 경제학자들
  7장.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
  8장. 환경 경제학의 분열
  9장. 경제학의 정당성?
맺음말. 성장의 재정의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존스(Christopher Jones)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에너지, 경제학, 환경의 역사를 주로 연구해온 역사가다. 하버드 대학교 환경센터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자연자원/정치 경제를 연구했다. 저서로는 'History of Technology'가 수여하는 연례 최우수 도서상을 수상한 『Routes of Power』가 있으며 「아틀란틱」, 「허핑턴 포스트」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SECRET BARRISTER
가제 : 익명의 변호사로부터
(부제 : 법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저자 : The Secret Barrister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8년 3월 22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 24주 연속 10위권 / 25만 부 이상 판매
* "독자들을 형사사법제도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놀라운 기술로 형법 제도는 범죄자와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것, 국가의 인도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재미 있게 전달하는 책" –「타임」지
*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동시에 저주를 퍼붓고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 『All Out War』의 저자 팀 쉽먼

재판장에서 무죄일지 유죄일지 판사가 내릴 판결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오가는 치열한 공방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 혹은 배심원의 심정에 대해 아주 간접적으로만 알 뿐이다. 특히 민사 사건이 아닌 범죄 행위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재판은 뉴스를 통해 결과만 접할 뿐 자신이나 가족, 친지가 연루되어 방청을 해볼 일도 거의 없다.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듯이,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재판의 절차, 더 나아가 형사사법제도의 의미나 가치 또한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기 전까지는 영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만 여기게 된다. 영국에서 법정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익명의 저자는 법정에 서는 것이 직업이자 일상이 된 변호사의 시각으로 바로 이런 거대한 격차 때문에 발생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 책에서 고발한다. 무고한 사람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 믿기 힘든 부당한 판결부터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사실이 명백한 피의자를 변호해야만 하는 울고 싶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결정과 판단이 수시로 내려지는 엄숙한 재판정의 현실을 낱낱이 해부한다.

저자는 '법정 변호인'이란 변호 외에도 사건에 따라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관계 개선을 돕는 심리 상담가 역할도 해야 하며 필요하면 윽박지르고 협박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인질 협상 능력과 뛰어난 운전 실력은 필수이고 회계사, 자살 감시자,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질까지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변호인의 역할을 설명함과 동시에 저자는 눈물이 날 만큼 웃기고 감동적인 사건의 한 가운데 서서 지켜본 현대 재판의 실태와 현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형사사법제도의 모순과 심각한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 대체로 유쾌하고 코믹한 말투를 유지하지만, 저자의 경험과 분석 속에는 인간이 질서 있는 삶을 위해 만들어낸 법률이 아이러니하게도 빚어낸 무질서와 우리가 제 발로 그 난장판 속에 들어가는 듯한 형국이 된 망가지고 더럽혀진 제도의 허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재판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추악한 거래와 왜곡되는 진실을 두 눈과 두 귀로 모두 보고 들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불편한 현실을 저자는 법정에 발 들일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 적나라하게 펼쳐 보인다. 직접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재판, 죄와 형벌은 결코 '남의 일'이라 외면할 수 없으며 왜 모든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감시해야만 하는지, 인간성의 가장 밝은 면과 최악이 다 드러나는 법정의 사례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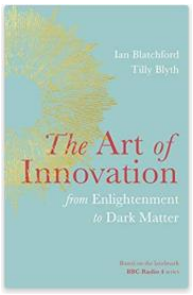
공명정대하다고 믿는 사법제도가 사실 위험할 정도로 무너지고 약화되었으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계산과 약속이 오가는 장이 되었음을 소리쳐 알리며 관심과 해결책을 촉구하는 저자의 특별한 호소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법을 굳이 깊이 알아야 하냐며 귀찮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던진다.

<목차>

머리말
1. 범죄와 처벌에 관한 간략한 해부
2. 치안판사법원의 와일드 웨스트
3. 보석, 구금,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수감
4. 왕립 검찰청: 죄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곳
5. 피해자가 먼저 아닌가요: 악마의 위대한 속임수
6. 변호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변호의 여지가 없는 사건
7. 법률 구조에 관한 오해와 무죄의 세금
8. 재판을 위한 재판: 1부 - 적대감과 싸워야 하는 사건
9. 재판을 위한 재판: 2부 - 적대감을 변호해야 하는 사건
(이하 생략, 총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익명의 변호사(The Secret Barrister)로만 신원을 밝힌 저자는 형법을 담당하는 영국의 하급 법정 변호사로, 「Solicitors Journal」, 「New Statesman」와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한 경력이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올해의 독립 블로거(Independent Blogge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ART OF INNOVATION
가제 : 예술의 과학, 과학의 예술
저자 : Ian Blatchford, Tilly Blyth
출판사: Bantam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19월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과학

* "예술과 과학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지 멋진 통찰력으로 밝혀낸 책" - 시각예술가, 조각가, 설치예술가 코넬리아 파커(Cornelia Parker)
* "예술과 과학이 결합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력적인 책이다" - 저술가, 과학 역사가 제임스 글릭(James Gleick)

반드시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그 호기심이 몇 가지 혹은 수십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중 무엇이 진짜이고 실현 가능한지 밝히기 위한 실험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술과 과학이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이과와 문과, 예체능 분야가 뚜렷하게 분리되고 심지어 배우는 학과목까지 나누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도 출신인 사람이 조각을 하거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대부분이 '엉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예술이 서로 무관하고 정반대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뿌리에서 생겨났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주어진 대로 가만히 받아들이기보다 색다른 방법으로 바꿔보고 싶은 열망에서 출발한 과학과 예술은 서로에게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할 영감과 자극을 주기도 하고, 나란히 서서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먼 옛날부터 애증의 관계, 끌리지만 동시에 거부감이 드는 관계라고 묘사한 것도 이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이 된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관장과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두 저자는 현대 사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기까지 이루어진 놀라운 혁신의 역사를 과학과 예술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동시에 놓고 분석한다. 예술은 과학이 남긴 훌륭한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으며 과학은 예술가의 시각을 접목시킨 덕분에 남다른 발전이 가능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예술 작품과 과학적인 발명 혹은 발견을 예시로 들어 보여주면서, 두 저자는 과학과 기술의 독창성이 예술적 표현과 결합되는 방식과 예술적 창의력이 기술의 혁신과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술가와 과학자는 각각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함께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이 컬러 사진과 일러스트로 이루어진 풍성한 시각 자료와 함께 소개된다.

두 저자는 17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과 예술, 문화의 관계가 얼마나 포괄적으로, 극적으로 바뀌어 왔는지 짚어본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거쳐야 했고 그 시대에 과학과 예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소통의 방식도 크게 달랐다. 예술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과학에 의존하게 될까? 과학자들은 예술에서 발전하거나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나 연구 주제를 기꺼이 더 깊이 파헤쳐볼 만한 재료로 받아들였을까? 두 저자는 존 컨스터블이 그린 뭉게구름, 기압의 변화를 처음으로 측정한 화학자, 사진술의 발명, 실제로 완성된 예술 작품과 실생활에서 활용된 기술, 발명품이 처음 고안되고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하나의 결과물을 이룬 다양한 요소에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제각기, 또는 한꺼번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그 하나하나의 사례마다 시대나 장소, 환경과 상관없이 과학자들은 늘 예술가처럼 시각적인 사고에 의존했고 예술가들은 자연철학과 과학적인 생각에서 영감을 얻어 사물과 주변을 관찰하고 탐구했다는 재미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탐색해왔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만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낭만의 시대
1. 과학적 숭고함: 어둠이 깨어나 지식이 되다
2.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 슈롭셔의 제련소
3. 풍자 대상이 된 과학: 길레이와 웃음 가스
4. 공기를 관찰하다: 컨스터블의 구름
5. 발전을 쫓아서: 증기 시대의 터너
6. 종이에 그려진 식물: 식물학과 예술
열정의 시대
7. 달을 향해: 사진의 진실
8. 디스플레이를 위한 염색: 다양성과 활력
9. 시간을 붙잡다: 시각 vs. 현실주의
10. 속도에 열광하다: 이동성과 현대성 (이하 생략, 13장까지)
양면성의 시대 (14-20장)

<저자 소개>

이언 블래치포드(Ian Blatchford)는 런던 과학박물관 그룹의 대표이자 동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관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런던 대학교에서 르네상스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5년 푸시킨 메달을 수여 받았다.

틸리 블리스(Tilly Blyth)는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소장품 관리 책임자 겸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과학정책과 역사학, 기술사회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제목 : YOUR BODY IN BALANCE
가제 : 호르몬이 해답이다
저자 : Neal Barnard
출판사: Grand Central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건강

*** 음식과 호르몬, 건강의 관계를 밝힌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강서 – 호르몬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포함**

정확한 이유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성, 갑상선 기능저하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찌고 늘 피곤한 사람, 특별한 일도 없는데 기분이 가라앉아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좋다는 방법을 다 써봐도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신기하게도 이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다. 몸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정말 음식이 불임과 갑상선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도 정말 이렇게 극명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영양 전문가이자 의학 박사인 저자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뒤바꾸는 더 큰 변화도 음식 하나로 좌우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인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일명 '지휘자'가 바로 호르몬인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호르몬 균형과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르몬이 인체를 어디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반대로 호르몬의 기능을 되찾으면 건강 개선과 통증 완화, 체중 감량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밝힌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오래 전 이미 의학 공부를 마친 의사들과 영양 관리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고루한 의학 전문가들의 무지한 고집과 달리 음식과 호르몬, 건강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이 이미 무수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한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청소년들의 이른 사춘기, 홍조, 불임, 체중 증가까지 놀라울 만큼 광범위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 생각없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치즈, 베이컨, 땅콩버터 등 몸에 썩 좋진 않아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았던 평범한 식품이 호르몬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면 인체 전반에 엄청난 영향이 발생하고 이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는 전략적인 식생활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되찾으면 삶의 질과 수명을 떨어뜨리는 각종 증상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호르몬은 인체 모든 장기가 제각기 맡은 기능을 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진대사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기분이 바뀌고, 체지방이 추가되거나 저장된 체지방이 연소되는 것도 모두 호르몬의 지휘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다. 저자는 이 중요한 호르몬이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식단 변화만으로 몇

개월간 괴롭히던 위 경련이 몇 주 만에 사라지고, 몇 년간 심적인 고통을 안겨주던 불임이 단 몇 개월 내에 해결되는 일은 극소수만 겪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다. 이는 음식이 호르몬에 그만큼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 봐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식단 변화를 통해 자포자기 상태로 체념했던 건강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하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세계적인 채식주의 전문가답게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채식주의 메뉴와 레시피도 다채롭게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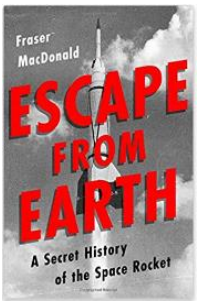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 전반적인 건강 개선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모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가득 담긴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1부. 성 호르몬: 균형을 찾아라
1장. 음식과 생식력
2장. 경련과 월경 전 증후군의 치료
3장. 여성이 암을 물리치는 법
4장. 남성이 암을 물리치는 법
5장.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
6장. 폐경에 대처하는 법
2부. 호르몬, 신진대사, 기분
7장. 발기부전 치료와 수명의 연장
8장. 당뇨에서 벗어나자
9장. 건강한 갑상선
10장. 건강한 피부와 모발
11장. 기분 변화와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음식
3부. 다시 기분 좋게 살아보자 (12-13장)
레시피

<저자 소개>

닐 버나드(Neal Barnard)는 조지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다. 현재 미국 전체 의대에서 2학년 영양학 교과서로 활용되는 『Nutrition Guide for Clinicians』의 편집장을 맡았다. 저서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Program for Reversing Diabetes』와 『The 21-Day Weight-Loss Kickstart』 등이 있다.



제목 : ESCAPE FROM EARTH
가제 : 로켓의 탄생: 지구를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
저자 : Fraser MacDonald
출판사: PublicAffairs
발행일: 2019년 6월 27일
분량 : 384쪽
장르 : 역사

* **"프랭크 말리나의 생애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주 시대가 태동하던 시기에 벌어진 정치적, 과학적 모순을 완벽히 포착했다" - 『The Ingenious Mr. Pyke』의 저자 헨리 헤밍**
* **"미국이 우주를 향해 나아간 역사를 매혹적으로 들려주며 로켓 시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책" - 『Raven Rock』의 저자 가렛 그래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검색 사이트만 열면 궁금했던 것들이 대부분 해소되고 필요한 정보도 금방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정보가 다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다 읽지도 못할 만큼 쌓인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추려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판적인 눈과 끈질긴 탐구심, 그리고 진실을 찾고 말겠다는 투지가 있어야 하고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한다.

역사 지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영국의 학자가 미국의 로켓 과학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된 것도 그 희박한 요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한 섬에서 냉전 시대에 지어진 군사 시설을 조사하던 저자는 그곳이 미국이 제작한 군사 로켓의 첫 시험 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런던에 돌아와 그 배경을 조금 더 찾던 중 이상한 사실을 깨닫는다.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최초의 유도 미사일이었던 '코포럴'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전신인 '제트 추진 엔진 연구소'에서 탄생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인류 최초로 고도 비행이 가능한 로켓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심지어 열심히 검색을 해봐도 '프랭크 말리나'라는 이름만 나올 뿐 로켓 개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다. NASA에서 일군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우주 탐사의 역사나 일조한 인물들의 업적은 무수한 책,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한데 20세기 과학 발전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자 인류가 지구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발판을 누구보다 먼저 개발한 프랭크 말리나의 이름은 왜 잊혀졌을까? 로켓 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고도 비행의 시대를 연 말리나와 그가 만든 혁신적인 로켓,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지워진 흥미롭고 안타까운 이유는 저자의 끈질긴 탐구심과 투지 덕분에 마침내 이 책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로켓이 엄청난 과학적 산물이기보다 별난 자들이나 심심해서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여겨

지던 1930년대, 공학도였던 프랭크 말리나는 로켓이 무엇인지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리라 결심한다. 화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던 동료 연구자 잭 파슨스가 흔쾌히 연구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훗날 역사를 바꾼 이 연구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잭 파슨스는 여자와 신비주의에 환장한 괴짜 중에 괴짜였지만 그의 비상한 두뇌는 말리나가 미국 고도 비행 로켓을 설계하고 제트 추진 엔진 연구소를 세우는데 큰 몫을 했다.

그러나 말리나의 업적과 그 가치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다. 저자는 파리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이 보관해둔 당시의 편지와 일기, 기술 문서에서 출발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FBI로부터 전달받은 기밀 문서를 토대로 말리나가 공산당원으로 지목되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잭 파슨스의 배신이 있었다. '적색 공포'가 만연하던 시대, 공산주의에 가담한 혐의로 유일하게 처형된 로젠버그의 스파이 활동과 프랭크 말리나가 이끌던 연구단의 관계, 그 혼란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성과, 이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은폐까지, 저자는 인간의 창의적 능력이 일궈낼 수 있는 기적 같은 결과와 이상과 꿈의 갈등이 빚어낸 인상적인 역사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우주 탐사와 로켓 공학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의 숨겨진 역사를 밝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서문 / 머리말
1. 캘리포니아
2. 결사대
3. 사실과 환상
4. 122 유닛
5. 전쟁놀이
6. 파시스트는 다 꺼지라 그래
7. 짐승이 사는 법
8. 사업
9. 우주를 향해
10. 수축
11. 탈출 문제
(이하 생략, 총 1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프레이저 맥도널드(Fraser MacDonald)는 에딘버러 대학교 인문지리학과 강사로, 과학과 지리학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가디언」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으며 그 외 다양한 간행물에도 글을 제공해왔다.

제목 : CLEVER GIRL FINANCE
가제 : 똑똑한 여자들의 돈 관리법
저자 : Bola Sokunbi
출판사: John Wiley & Sons
발행일: 2019년 6월 1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제/자기계발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지침서. 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빚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탄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금융 전문가, 팟캐스트 'So Money' 운영자 파누쉬 토라비(Farnoosh Torabi)

*** "개인 금융이라는 괜히 겁 먹게 되는 주제를 멋지게 다룬 인터렉티브 가이드" - UniWorld Group 대표 모니크 넬슨(Monique Nelson)**

돈을 잘 벌고 잘 모아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 당연한 사실을 금융업계가 너무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인 금융업계에서 남성들이 설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광고 전단이나 포스터에 핑크색을 칠하고 '여성을 위한'이라는 문구를 당당히 내걸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디가 정말 여성을 위한 특별한 부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진짜 필요로 하는 금융 혜택과 지원은 전혀 없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만병통치약'식 상품에 허울만 좋고 실속은 없는 포장지만 입혀서 출시되는 상품들에 질렸다고 말하면서 여성이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또 목돈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와 이를 가로막는 부당한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 책에서 상세히 밝힌다. 여성이 독립적인 한 명의 경제인으로서, 사회의 경제적 엔진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배울 수 있다. 무작정 최대한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단순하고 모호한 계획보다 자신의 지출과 예산을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한정된 급여를 가장 알차게 활용하는 법, 신용 관리 요령, 신용카드에 묶인 혼란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 무엇보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고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 등 유용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역사는 정말 짧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분명하다. 집안의 경제적인 가장이 여성인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어 더 이상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문제는 여성의 수입이 늘어난 것과 별개로 여성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대부분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서도 여성의 수입 규모는 남성보다 20 퍼센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평균 5-10년 가량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생애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이 더 많은

돈을 모아 두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만큼, 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성이 '감정적인 이유'로 돈을 쓰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마음이 울적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감정이 예민한 것은 여성의 특징이고 많은 부분에서 남성과는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특별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존재한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여성에게 꼭 맞는 돈 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여성이 가진 장점과 단점, 우위에 있는 부분과 불리한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금융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 책과 동명의 웹 사이트를 통해 이미 많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현명하고 똑똑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불필요한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지침들이 실제 여성들이 겪은 귀중한 사례와 함께 소개된다. 수입과 부채 관리, 저축, 투자, 장기적인 자산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연봉 협상 팁 같은 세부적인 정보까지 야무지게 배울 수 있는 알찬 정보서다.

<목차>

잘 찾아오셨습니다 / 이 책 활용법 / 머리말 / 나의 이야기
1부. 출발 / 무엇을, 그리고 왜
  1장. 마음가짐
  2장. 정리를 해보자
2부. 계획
  3장. 예산 계획
  4장. 빚과 대출금
  5장. 투자
3부. 필요요건
  6장. 신용
  7장. 스스로를 지키자
  8장. 돈 불리기
  9장. 핵심 조치

<저자 소개>

볼라 소컨비(Bola Sokunbi)는 공인 재무교육 강사이자 금융 전문가, 팟 캐스트 운영자다. 위 책과 동일한 명칭의 개인금융 지원 플랫폼을 설립한 CEO이기도 하다.